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가능할까

‘노사합의’ 넘는 ‘법적 제도’로 언론 독립 보장해야

윤창현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장

시민과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SBS는 탄생 이후 지금까지 자본에 휘둘리고 정파의 도구,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며 민영방송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 SBS 재허가 파동, 촛불혁명을 겪으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회사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은 족벌경영 체제 확정 이후 소유와 경영 분리의 선을 넘고 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민영방송의 고군분투는 오늘도 진행형이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민영방송 체제의 거대한 뿌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자본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이라는 물음의 진정한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자.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겨울 전두환의 괴벨스라 일컬어지는 허문도의 주도 아래 폭력적인 방송 언론 통폐합을 단행한다. 이로 인해 서슬 퍼런 유신 독재 치하에서도 유지됐던 민영방송 체제는 단숨에 붕괴했다. 그리고 권력의 나팔수가 된 공영방송은 ‘맹전뉴스’로 점철된 부끄러운 역사를 써내려 간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고, 사회 전반에 확산된 민주화 열기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방송 환경 조성에 대한 희망을 다

시 만들어낸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90년 민영방송의 탄생이다.

민영방송 SBS의 뿌리는 시민과 민주주의

비록 민영방송의 부활이 군사정권의 후신인 노태우 정부에서 이뤄진 조치라 하더라도 민영방송 SBS가 태동할 수 있는 토양과 뿌리는 광주에서 스러져간 민주주의 영령들, 그리고 위대한 항쟁으로 역사를 바꾼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9여 년의 SBS 사사를 돌이켜 보면 민방 탄생의 토양과 뿌리에 대한 망각과 배신이 방송 공공성 훼손과 정치적 편향, 건설자본에 의한 방송 전과 사유화로 이어져 왔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은 SBS 창사 초기부터 방송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무력화했다. 아예 경영 방침¹⁾으로 건전한 국민정신의 계도,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한 국익 우선 보도 등을 내세우며 특정 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편향적으로 대변하는 정파적 도구로 SBS를 왜곡했다.

1) SBS가 1996년 5월 발간한 《SBS 창사 5년》 112쪽, 6. 기본 사업계획에 따르면 창사 당시 SBS의 경영 기본 방침으로 1. 건전한 국민정신의 계도 2.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한 국익 우선의 보도 3.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 전달 4. 내실 있는 경영 추구라고 밝히고 있다.

역사의 고비마다 정파의 도구였던 SBS

이런 경영 방침은 일선 제작 현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 편향의 불공정 방송이 잇따르며 사회적 지탄과 불신을 자초했다. 특히 90년대 두 차례의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야권의 김대중 후보 유세 화면을 축소 조작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들을 벌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보수 진영에 부화뇌동해 탄핵 시도의 정당성을 알리는 보수 진영의 스피커 노릇을 자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를 기각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가 불발되면서 SBS에도 거센 역풍이 몰아친다. 민방 탄생의 뿌리인 민주주의 확산에 끊임없이 고춧가루를 뿌려온 태영건설의 민방 지배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함께 아예 방송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른바 ‘2004년 SBS 재허가 파동’이다.

2004년 10월 12일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SBS 재허가 심사 보류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유·경영 분리 원칙… 시작은 창대했으나

당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SBS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어렵사리 탄생한 지상파 민방 허가 취소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유지하되 태영건설이 더는 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유·경영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후 소유·경영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SBS 미디어홀딩스를 설립해 태영건설이 SBS를 직접 지배하지 않는 형태로 기업 구조를 바꾸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소유·경영 분리 약속이 사문화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태영건설은 지주회사 SBS 미디어홀딩스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방송 개입과 사유화로 SBS를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불공정을 넘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

당시 윤세영 태영건설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 체제는 SBS의 4대강 비판 보도를 통제하며 뒤로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또 여론 균형 파괴와 미디어 시장 교란 우려로 엄청난 사회적 반발에 부딪혔던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SBS를 총동원한 전방위 로비를 한 바 있다. 이때 지상파 민방의 최대 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3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끼워 넣으며 태영건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지상파 방송 전체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폭거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는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보도 지침을 하달해 대주주가 앉아서 SBS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했다. 지주회사 체제 아래서 시청자에게 돌아가야 할 SBS의 방송 콘텐츠 수익을 지속

“

SBS 독립 경영과 공공성 확보 노력은 태영건설의 족벌 경영 체제 구축과 함께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SBS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이 퇴진하고 아들 윤석민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노사합의와 소유·경영 분리의 기본원칙을 모두 무력화시키며 다시 SBS를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SBS 구성원들은 창사 이래 약속을 밥 먹듯 파기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SBS를 장악하려는 윤석민 회장 체제의 시도를 온몸으로 막으며 저항하고 있다.

”

적으로 유출하며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SBS의 체력을 방전시켰다.

시민이 다시 길을 열어주다, 2017년 임명동의 체제의 구축

지난 2017년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시민의 힘은 SBS에도 다시 길을 열어 주었다. ‘RESET! SBS!’ 투쟁은 창사 이래 반복돼 온 대주주의 방송 개입과 사유화, 경영 농단으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송 정상화 투쟁이자, 생존권 투쟁이었다. 무너진 신뢰와 지속 불가능한 구조 아래 미래를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된 사장 임명동의제를 포함해 수익구조 정상화 합의 등을 통해 SBS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시청자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

는 듯했다. 가시적 성과도 적지 않았다. 태영건설의 방송 개입을 차단한 이후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의 방송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성역 없는 보도가 이뤄졌고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실적이 뒤따랐다. 고질적인 수익 유출 구조를 정상화하는 합의도 이뤄졌다.

태영건설 2세 족벌 경영 체제와 SBS 독립 경영의 위기 재발

하지만 SBS 독립 경영과 공공성 확보 노력은 태영건설의 족벌 경영 체제 구축과 함께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SBS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이 퇴진하고 아들 윤석민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노사합의와 소유·경영 분리의 기본원칙을 모두 무력화시키며 다시 SBS를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SBS 구성원들은 창사 이래 약속을 밥 먹듯 파기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SBS를 장악하려는 윤석민 회장 체제의 시도를 온몸으로 막으며 저항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아래 벌어진 여러 불법적 경영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진 상태다. 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미봉책과 어설픈 타협으로는 지상파 방송과 SBS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배주주의 제왕적 권한과 전근대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SBS 사유화 논란 속에 과연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이 가능한 명제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가능한가?

자본은 방송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다. 그러나 자본가가 자본을 무기 삼아



4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노조 긴급 기자회견 '태영건설, 지상파 방송 지배주주의 자격을 묻는다'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장(왼쪽),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익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면 공동체에 기반한 방송 언론의 역사적 책무와 시민 신뢰에 결정적 위협이 될 수 있다. SBS의 지난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지난 29년간 지속해 온 SBS 구성원들의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싸움이 완결되지 못하고 다시 고비를 맞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투쟁은 최소한의 공정 방송 수호 활동조차 쉽지 않았던 초창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욕망은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는 한 사라질 리 없다. 따라서 방송

언론 노동자들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싸움 역시 중단할 수도, 중단될 수도 없는 운명이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싸움은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과 수준에서 지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개별적 노사합의에 머무르고 있는 방송 언론의 독립성 확보 투쟁과 수단을 전체 언론의 필수적 장치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언론과 방송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와 감시를 일상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며 방송 독립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싸움에 매진해야 한다. ■